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4차 정기이사회

□ **회의일시** : 2018. 7. 19(목) 14:00

□ **회의장소** :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

□ **참석이사** : 김상균 이 사 장
권혁철 이 사
김경환 이 사
김광동 이 사
유기철 이 사
이완기 이 사
이인철 이 사
이진순 이 사
최강욱 이 사 (9명)

□ **불참이사** : 없 음

제14차 정기이사회 속기록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의장
- 간사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재적이사 전원과 감사님이 참석하셔서 2018년도 제14차 정기이사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 선언

○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제14차 정기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경과 및 동정

○ 의장
- 먼저 간사로부터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 간사
- 먼저 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MBC 경영에 대한 평가단의 보고서가 최종 수정되어서 오늘 의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 사무처장 지노위 구제신청 건 심문기일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MBC 관련 동정입니다. 7월 2주차 핵심시간대 가구시청률은 4.8%로 지상파 4개 채널 중에서는 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49 상위 20개의 프로그램에는 MBC가 6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나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프랑스와 크로아티아 - 월드컵 축구 결승>, <전지적 참견시점>, 월화드라마 <검법남녀>, <신기한 TV서프라이즈> 등이 있습니다. 메인뉴스 시청률은 주중 3.3%, 주말 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청률

은 전체 경기로는 가구당 시청률이 4.1%, 한국 경기가 있던 날은 13.1%입니다. 다만, 2049 시청률은 압도적으로 MBC가 1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계 동정입니다. 지난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지원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26명, KBS에 49명이 지원하였습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증 절차가 마감된 후에는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7월 23일에는 그 결과를 공개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과방위의 위원장에는 민주당 노웅래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YTN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자로 정찬형 교통방송 사장 등 4명을 압축해서 7월 23일에 공개 정책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 이사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그러면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보고사항

1) MBC 이사회 결의내용 보고

○ **의장**

- 다음은 ‘MBC 이사회 결의내용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입장)

○ **의장**

- 조 본부장, 오늘 보고 내용은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의장**

-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이사회 결의 내용, 이사회 안건이 25일, 28일, 7월 2일 이렇게 3개입니다. 하나는 조직 개편 및 사규 개정이고, 매년 하는 여름 보너스 체력단련비 지급 관련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조직 개편에 관한 것인데 보도국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 보도국장, 앵커 바꾸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 앵커 체제에서 뉴스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페이지 보도국 조직도에 있는 대로 취재센터, 편집센터, 뉴스콘텐츠센터를 에디터제로 해서 3센터

16부를 6에디터 17팀으로 늘렸습니다. 이것 핵심은 취재센터에 있는 부장들을 거의 그대로 팀제로 갔지만 사무실에서 MBC 내에서 지휘하는 에디터를 두고 전에 있는 각 부장들이 직접 리포트하고 기사 쓰고 출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묶고, 그리고 현업에 베테랑 기자들을 투입하는 이런 식의 개편입니다. 그래서 앵커도 바꾸고, <마리텔>을 패러디한 <마이리틀 뉴스>도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규 개정은 MBC 편성규약을 개정했는데 이것은 방통위 재허가 조건에 맞게 유일노조 시절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은 현재 복수노조를 감안한 '근로자대표'로 변경 등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업부를 'DMC페스티벌사업부'로 고쳐서 9월에 예정된 DMC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 이름을 바꿔서 힘을 실어주는 개편 개정입니다. 체력단련비는 매년 하는 여름 체력단련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이인철 이사**

-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보도국이 구체적으로 업무 형태가 어떻게 했다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업무 형태는 그대로 갔고, 아시다시피 묶었습니다. 취재센터 밑에 정치부, 통일외교부, 국제부, 경제부, 사회1부, 사회2부 등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장들과 데스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치국제에디터, 소비자경제에디터, 사회문화에디터 이렇게 3개로 나누고, 부장들을 팀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취재하고 리포트하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기사를 고치고 데스크 역할은 정치국제에디터들이 하고, 부장들까지 현업으로 투입해서 취재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형식입니다.

○ **이인철 이사**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규 개정 관련해서 편성규약 개정이 있는데 편성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으로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그때 보고가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 4월까지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됐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지요?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4월까지 하도록 한 조건은 인사위원회를 4월까지 만들어서 상반기에 실시하는….

○ **이인철 이사**

-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4월까지 그 계획안을 하고 상반기에 실시하라고,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다.

○ **이인철 이사**
- 알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라 함은 편성위원회 말씀입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 **김광동 이사**
- 그 데피니션이 1노조는 1노조를 통해서 대변되고, 또 소수지만 2노조나 3노조는 그 노조를 통해 대변되고….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여기에 맞춘 것이 근참법에 의한 근로자대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참법에도 어느 한 노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참여에 관한 법 있지 않습니까? 사측, 노측 이렇게 나오듯이 근로자대표, 사측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것은 근참법의 원용하는 식으로 한 것입니다. 특정 노조를….

○ **김광동 이사**
- 제가 근참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 때문에 그러는데 1노조, 2노조, 3노조는 각각 자기 구성원을 대표해서 의사를 집결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찾고, 나머지 1노조, 2노조, 3노조 아무 데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독자적으로 따로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근참법에는 다수 노조가, 과반 이상 하는 노조가 근로자대표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근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로자대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광동 이사**
-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라고 용어를 변경해도 결과적으로 한 노조가 과반수 이상을 점하면 그 노조를 통해서만 편성규약과 관련해서….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저희는 과반수 노조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은 아니고, 이것은 유일노조 시절에 만든 것이라 지금은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대표가 누구누구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아직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게 가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근참법에도 근로자대표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은 저희가 상관할 것이 아니고 근로자끼리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특정해서 어느 조합, 누가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 **김광동 이사**

- 노조는 노조대로 대표성을 갖는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한 35%에 해당하는, 어느 노조에도 가입되지 않는 사람은 편성위원회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의사 표명을 편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그것은 근로자끼리 정해야겠지요. 저희 사측에서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 **김광동 이사**

- 그 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그렇지요. 어느 기업도 그것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 **김광동 이사**

- 알겠습니다.

○ **권혁철 이사**

- 지난번에도 이것이 한번 노조 대표와 그다음에 근로자대표가 정확히 다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했던 것도 보고서에 쓰신 것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1노조 시절과 복수 노조를 감안한 근로자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조 대표를 상정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근로자대표라는 것은 노조, 다수 노조만이 아니라 소수 노조도 당연히 감안해야겠지만 노조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 역시 그들도 대표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총원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선발되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완기 이사**

-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없지요.

○ **권혁철 이사**

- 무슨 말씀을….

○ **김광동 이사**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권혁철 이사**
- 그런 자꾸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 **이완기 이사**
- 대표성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권혁철 이사**
-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데….

○ **이완기 이사**
- 말씀 들어보십시오. 대표성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조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표성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표성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회사는 그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다 논의해야 합니다. 임금 협상도 다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 **김광동 이사**
-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노조의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 **이완기 이사**
- 일반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 **김광동 이사**
- 여기는 편성과 관련된 근로자의 대표성을….

○ **이완기 이사**
- 근로자의 편성이지요.

○ **김광동 이사**
- 아니지요. 편성과 근로조건과 다르지요.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대표성을….

○ **이완기 이사**
-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과 관련된다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광동 이사**
- 확정 판결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완기 이사**

- 일단 그 판결까지는 나와 있지요.

○ **권혁철 이사**
- 여기에서 근로자대표가 예를 들어 투표로 뽑는다고 정해졌을 때 그것이 1노조의 대표가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전체 근로자를 대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 자체를 배제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배제하고 1노조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 **김경환 이사**
- 이것은 저번에도 논의했던 논쟁의 쟁점이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 **김광동 이사**
- 사규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었으니까….

○ **김경환 이사**
- 예, 하신다니까 그렇게 넘어가시지요.

○ **권혁철 이사**
- 그 부분을 명확히 감안하셔서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완기 이사**
- 그것은 조능희 본부장이 답변을 제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예, 맞습니다.

○ **김경환 위원**
- 반영해서 하신다니까….

○ **권혁철 이사**
- 그 이야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이완기 이사**
-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보도국 국장이 바뀌면서 개편을 했는데 에디터 제도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지요?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기 이사**

- 그런데 교체하면서 조금 생소한 명칭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소비자팀, 경제정책팀, 미래산업팀, 인권사회팀 이런 것들은 기존 조직에 없었던 명칭입니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통합해서 예를 들자면 사회1·2부를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 **이완기 이사**

- 기존 취재센터에 들어가 있던 사회1·2부를 이를 테면 인권사회팀, 교육복지팀 이런 식으로 팀 명칭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그리고 옛날에 부장들은 책상에 앉아서 지휘했는데, 여기 팀장은 부장급들입니다. 지금 부장들도 다 현장 배치했고 현장에서 지휘하고 취재하고 리포트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에디터 셋이 총괄적으로 해서 사내에서 지휘는 에디터들이 한다는 개념입니다.

○ **이완기 이사**

- 원래 팀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정된 조직이 아니고 없어졌다가 또 다시 나왔다가 왔다 갔다 변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팀의 성격도 그런 것입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그것은 에디터가 예를 들면 전에는 각 부간 업무를 하려면, 인사 배치를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디터 책임에서 팀제니까 팀이 늘어나고 줄고 팀 간 이동은 에디터 밑에서는 자유롭게….

○ **이완기 이사**

- 에디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그렇습니다.

○ **이완기 이사**

- 사회1·2부 이런 것처럼 고정된 조직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는….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에디터 밑에는 팀 간의 교류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에디터의 권한으로 그 안에서 조금 유연하게, 옛날에는 부로 만들어졌는데 직급만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완기 이사**

- 과거에 있었던 경제부, 사회1부, 2부 이런 명칭을 조금 분산시켜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러운 명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신 전체적으로 보니까 4개 정도의 자리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에디터로 부국장이 늘어났는데 저희로서는 이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왜냐 하면 부장들이 현장 지휘를 하려면 적어도 에디터가 2~3명 늘어나는 것은 용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완기 이사**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편집센터와 뉴스데스크 에디터, 뉴스투데이 에디터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 **이완기 이사**
- 과거에도 그랬지만 편집센터라는 것이 신문사에서는 편집국이 제일 중요한데 편집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아젠다 세팅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거의 기능적인 일, 취재센터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넣고 빼고 하는 것, 보도국 회의에서 다 끝나고 여기에서는 방송 내보내는 일만 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에서도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전보다 방송 일이라는 것이 신문과 달리 방송 나가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또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의 아이템 배치도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해야 하고, 지금 CG의 역할이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뉴스데스크>를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뉴스투데이>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간단한 것입니다. 상반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체력단련비는 정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된 그대로 지출된 것이지요?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 **김광동 이사**
- 그러면 비상 경영 체제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임원들끼리 경영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아직 검토 단계입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한 것보다 더 녹록치 않다는 점은 공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알겠습니다.

○ **의장**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에디터로 바꾸는 것이 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에디터들을 구성원들이 부를 때 호칭을 무엇으로 합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자들이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의장**

-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저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 곤란하지요.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어디는 '형'이라고 하고, 어디는 '부장님', '국장님'이라고 하고 '에디터님'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의장**

-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회사 언론 쪽의 많은 조직들이 다른 일반 기업 조직 개편 흉을 내다가 팀이나 다른 별도의 조직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그 뒤에도 너무 오랫동안 입에 올라서 그런지 부장, 국장이라는 호칭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에디터라고 해 놓고 구성원들이 혹시 국장이라고 부르는지….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부장', '국장'도 하지 않고 '선배' 그러면서 큰 소리로 서로 의견 충돌하던데요.

○ **의장**

- 사석에서 욕을 해도 상관없지만 타이틀 에디터는 보통 우리가 직책을 원용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선 석 자니까 '에디터 님'도 그렇고 '에디터 씨'도 그렇고 이상하지 않겠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 **의장**
-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 **이진순 이사**
- 저 질문 있습니다. 지금 부서 간 업무 장벽을 없애고 관련 업무를 주제별로 이슈별로 해서 재편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그 부서 간 업무 장벽을 없애는 데 지금 이런 식의 팀 체제가 어떤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팀 간 이동 혹은 팀의 새로운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은 각 에디터 단위에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지요?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 **이진순 이사**
- 원래 취재센터에 있었던 둘을 3개 에디터팀 그리고 9개 작은 취재팀으로 나누었는데 그중에 탐사보도부는 위에 탐사기획팀으로 이동된 것 같고, 결국 8개 부서가 오히려 9개 팀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도국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동안 해결이 안 돼서 뉴스의 새로운 혁신이나 콘텐츠 강화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경력을 갖춘 중견 인력의 부족 문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팀제로 개편하고 실제로 팀의 숫자가 더 늘어났는데 그런 중견 인력 부족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됩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그래서 현장의 중견 인력 부족으로 부장들이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지휘하라는 것으로 해서 한 4~5명을 아주 핵심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중견 인력의 부족은 임시적이고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 **이진순 이사**
-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 **이진순 이사**
- 기존 탐사보도부와 지금 탐사기획팀과 위상이나 인력 규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저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순 이사**
- 그런데 왜 탐사기획팀은 위로 따로 떼어 놓은 것이지요?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정치, 소비자,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는 것과 어느 한 분야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이 어느 분야를 가든….

○ **이진순 이사**
- 각 팀별 최소 인력, 최대 인력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팀마다 인원 수가 똑같지 않을 것이고….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똑같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사적인 것이 있기는 있는데 아마 전 부서에서 거의 비슷한 순서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팀 내는 조직은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으면 바로 옆에서 수혈 받고, 지금 당장 팀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진순 이사**
- 그러면 6월 25일부터 팀제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 **이진순 이사**
- 그러면 지금 3주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중간 보고나 평가를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저희는 일단 딜레이를 시켜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지만 뉴스 앵커가 새로 가면서 보자는 것으로 평가를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특히 낮에 부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리포트 하는 것은 후배들이 좋아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 **의장**
- 조 본부장도 정통한 것 같지 않고 새로 생긴 제도라서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주무 부처 본부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기회가 주어지면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 **이완기 이사**
- 과거에도 팀제를 해 봤는데 다른 곳은 잘 됐는데 유일하게 보도국만 팀제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국만 부제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 일이 과거에 한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직 성격상 약간 경직된 조직, 그리고 권위적인 조직인데 팀제로 바꾸면 나름대로 팀장도 나가서 취재도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팀제로 바꾸어서 일하는 인력을 좀 더 보강하고 고참 기자들도 나가서 취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꿨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적재적소에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유의하겠습니다.

○ **의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권혁철 이사**
- 기획사업국 산하 이벤트사업부를 'DMC페스티벌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벤트사업부가 DMC페스티벌을 맡고 있던 부서입니까?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예.

○ **권혁철 이사**
- 그것만 맡고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이것은 사업본부에서 요청을 했고 아무래도 특별한 사업에 매진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꿔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 **권혁철 이사**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원래 했던 업무 명칭을 좀 더 명확하게 부여한 것인지, 자칫하면 업무만 제약을 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그렇지 않습니다.

○ **권혁철 이사**
-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 퇴장)

5. 결의사항

1) 2017년 MBC경영평가 결과 승인 및 공표 결의건

○ **의장**
- 다음은 결의사항입니다. '2017년 MBC경영평가 결과 승인 및 공표 결의건'입니다. 지난번에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소위원장님!

○ **김경환 경영평가소위원회 위원장**
- 앞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저번에 이사회에서 상정된 이후에 관련된 내용만 간단히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제13차 정기이사회에 경영평가 보고서를 이사회에 상정했는데, 그때 논의된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사님들의 수정 요청 의견을 접수해서 경영평가단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전달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반영한 수정 사항이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신 수정 요청 의견에 대해 많이 반영된 내용으로 수정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인철 이사님과 권혁철 이사님이 주신 수정안과 관련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수정이 타당하거나 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이사회에서 경영평가 보고서 공표에 관한 결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순 이사**
- 지난번에 권혁철 이사님이 제기하신 '2010년 체제'라는 용어를 전반적으로 다 삭제하고 다른 용어로 대체하신 것이지요?

○ **김경환 경영평가소위원회 위원장**
-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 **이진순 이사**

- 이 정도면 논의할 만큼 하고 서로 타협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 김경환 경영평가소위원회 위원장
- 예.

○ 이완기 이사
-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 김경환 경영평가소위원회 위원장
- 저희는 저번에 논의했고, 혹시라도 전체 이사회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쪽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 이완기 이사
- 그 뒤로 의견이 있었습니까?

○ 김경환 경영평가소위원회 위원장
- 없었습니다.

○ 이진순 이사
- 통과시키지요.

○ 권혁철 이사
- 지금 김경환 소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차적으로 제가 수정 요청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반영이 거의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사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집필자가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렇게 집필자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것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이인철 이사
- 저도 제 의견 냈던 것에 대해 집필자께서 잘 알아서, 제가 용어 제시는 정확히 못했는데 적절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 지난번 이사회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연기할 때 거론이 됐습니다만 평가교수단들도 저희들과 비슷한 스펙을 가진 분들인데, 그 분들도 당신들이 준비했던 보고서를 고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 번 더 수정을 요청했고 거기에서 본인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성의 있게 수정해 주셨고, 다행히 이사님 분들께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결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사 있음) 그러면 2017년 MBC경영평가 결과를 수정한 대로 승인 및 공표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MBC 최승호 사장 해임 결의건

○ **의장**

- 다음 결의사항입니다. 'MBC 최승호 사장 해임 결의건'입니다. 관례에 따라 지금 본인이 없습니다만 공개, 비공개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진순 이사**

- 공개하시지요.

○ **의장**

- 공개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예" 하는 이사 있음)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권혁철 이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 마지막 이사회에서 방문진이 임명했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임명했던 현 문화방송 최승호 사장에 대해서 해임 안을 낸 것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2017년 2월에 선임되었던 임기 3년의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경영 책임을 물어서 2017년 11월 2월에 해임을 했고, 임기 9개월 만에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7일 잔여 임기 2년의 최승호 사장을 선출하여 임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방문진이 다매체 그리고 다채널이라는 변화된 방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반복되어 온 파업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MBC가 가진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보다 공정하고 균형된 보도,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국민적 신뢰 회복, MBC 위상 제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7개월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최승호 사장이 보여준 경영 결과는 출범했을 때 국민적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더군다나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승호 사장은 '공영방송 본연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콘텐츠 제작과 혁신'이라는 본 방송문화진흥회가 제시한 경영 방침을 전혀 구현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MBC에 대한 시청자 신뢰 회복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모두에서 경영 개선과 조치 노력을 하지 않은, 메이저 방송사로서의 경쟁력과 존재감, 그리고 국민 신뢰 등 모든 영역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몇 가지 중요 사항만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국민과 시청자는 최승호 사장 출범 이후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청률로 나타나는 바, 최승호 사장은 2017년 6.7%였던 시청률을 2018년 핵심시간대 시청률 10% 목표를 상반기 업무보고 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려 720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평균 시청률은 4.9% 전후입니다. 참고로 KBS2는 7.7%, KBS1은 6.6%, SBS는 6.3%입니다. 따라서 당초 내세웠던 목표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상파와 비교하더라도 참혹한 수준이고, 작년 거의 6개월에 걸친 전면 파업이 계속됐던 2017년도 연간 핵심시간대 시청률 6.7%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임은 물론, 이는 57년 문화방송 역사에 없었던 시청률 참사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청률 TOP 20, TOP 10도 방문진에 대한 약속과는 달리 목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드라마와 예능의 경우는 더욱 참담합니다. 제작경비 608억원의 증액, 일반경비 146억원의 증액을 통해 과감한 투자와 제작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왕국'이라는 MBC 드라마 닉네임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드라마 라인업을 전면 교체하면서 편성한 3월부터 5월 1일까지 방영된 <위대한 유혹자> 등은 시청률 1.6% 혹은 1.7%를 반복하면서 평균 시청률 2.2%에 불과한 참혹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드라마, 예능의 경쟁력 저하는 당장의 광고 수입도 광고 수입이지만 향후 몇 년에 걸쳐 판매되면서 걷을 수 있는 콘텐츠 판매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영 적자 폭은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민의 공영방송인 MBC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상실시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국으로 몰아가는 상황입니다. 최승호 사장은 자산 2조 1,000억원에 직원 숫자가 본사만 1,850명, 계열사 포함 3,500명의 임직원 갖춘 회사를 불과 자산 4,000억원대, 임직원 400명대 전후 수준의 종합편성 채널과 비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최승호 사장은 회사 전체를 대표하며 방송 경영의 최일선의 책임 경영에 나서지 않고 본인을 사장으로 만들어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본부노조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 화합과 자율적 경쟁력의 상징이던 MBC를 갈등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원진 및 국장급 간부의 구성을 대부분 민노총 소속 MBC 노동조합 위원장 및 조합 간부 출신으로 구성해서 '국민의 방송'과 '노조의 방송'을 구별하지 않고, 사회적 다양성과 가치의 다양성을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적 이해집단의 견해와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고 MBC를 또 다시 특정 정치 세력과 전체 노동자의 3%에 불과한 귀족 노동자들의 시각만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경영상으로 보면 2012년 노조 파업으로 매출액이 약 900억원 가까이 축소되었고, 다시 2017년 장기간 노조 파업으로 매출액이 1,600억원 줄어들어서 2017년 550억원 영업이익 적자를 포함 대대적인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쯤 되면 비상 경영 체제라도 나와야 할 판에 노조 중심적 경영으로 성과급제나 연봉제 등을 폐지하고 나이에 따라 호봉제, 그리고 입사 연수에 따른 직급 부여 등으로 더 이상 문화방송의 정상적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무엇보다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지방 계열사 및 자회사 임원 선임을 전국언론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임명한 것이나, 마치 '인민위원회'를 연상케 하는 '정상화위원회'를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 대표와 만들어 운영하고 그런 편향된 시각에 따라 직원들을 재단하고 처벌하도록 한 것은 국민이 부여한 경영권의 유례 없는 남용이자 월권 행위입니다. 특히 2003년 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던 최승호 사장은 문제 지적과 탐사 보도 위주에 '시사PD' 중심의 인사와 경영을 통해 균형과 다양성을 짓밟고 일방적으로 내부 갈등을 조장하며 회

사를 위해 기여하고 희생해 온 능력 있는 임원들을 무단 해임 처분하거나 해고를 남발하는 등 무분별한 공포 조성적 경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방송 MBC를 특정 이념 세력이나 친 노동조합 방송으로 만들었고 국민이 부여한 경영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한 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의제 설정과 민주적 여론 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종합 뉴스인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비교하기도 참혹한 수준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2016년도 상반기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약 6.4%, 2017년 상반기 시청률이 5.7%였던 것에 반해 최승호 사장 체제가 들어선 지난 6개월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소위 '애국가' 시청률에 준하는 3%대에 고착되어 있어 수많은 시청자가 <뉴스데스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드루킹' 보도와 '다스' 보도에서 보인 현격한 차이 등을 포함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한다는 방송 본연의 역할은 커녕 정부 홍보 매체를 자임하며 대변해 온 것, 그리고 전체 노동자의 3%에 불과한 민노총 노조의 시각에 의존하는 뉴스 보도의 결과는 다른 공영방송인 KBS는 물론 상업방송인 SBS나 종합편성 채널인 JTBC는 물론 MBN과 경쟁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임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 중 하나가 낮은 <뉴스데스크> 시청률이었습니다. 현재 나타난 6개월간의 뉴스 시청률은 그것보다도 훨씬 악화된 참사 수준으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약 400명의 인력이 종사하여 만들고 전체 방송의 20%를 차지하는 뉴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MBC 뉴스를 아무런 사회적 가치를 주도하지 못하고 편향되고 볼 가치가 없는 뉴스로 전락시켜 온 것은 전적으로 최승호 사장의 잘못된 조치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뉴스를 만들던 약 80명이 넘는 훌륭한 역량과 균형성을 갖춘 보도국 기자들에게 뉴스 제작을 못 하도록 업무를 박탈한 것은 물론이고, 보도국 내 인력을 파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파업 참여자 내에서 '유배자'와 '해고자' 등 몇 개 등급으로 나누어 대우하고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업무와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는 식의 파행적 운영으로 보도국이 가진 역량을 완전히 소실시켰습니다. 나아가 해외 특파원을 특혜자라고 간주하여 12개 해외 특파원을 일괄 소환하고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MBC의 경쟁력인 하나인 국제 뉴스를 무력화시켰으며, 오랜 시간 키워온 경쟁력 기반과 네트워크조차 완벽하게 무너뜨려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최승호 사장은 철저히 이중 잣대를 갖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강행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해 가며 부당해고 및 부당 징계를 남발하였고, 그 결과 MBC가 가진 역량과 조직은 철저하게 무너졌으며, 더 이상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정당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당한 취재 행위 혹은 취재 과정의 실수를 이유로 무단 해고를 자행하여 더 이상 노동조합 친화적 가치가 있지 않는 한 적극적 취재 자체를 하지 않는 MBC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직원을 '부역자'로 규정짓고 찍어낼 명단을 작성한 노동조합의 행위는 정상적으로 본 반면,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직원들의 정당한 인사상의 의견 교환 행위를 불법 블랙리스트로 규정짓고, 소위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취재기자 블랙리스트'니 하는 말을 만들어서 징계하는 있을 수 없는 조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도의 균형과 중립이 요구되는 문화방송 보도본부를 파업 참여와 비참여로 구별짓도록 만들고, 취재는 노조의 눈치와 동의를 받아 취사선택하고 진행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전체 직원을 대표할 수도 없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갖는 '공정방송협의회'를 다시 부활시키는 논의를 진행시킴으로써 중립과 공정의 상징이어야 할 MBC를 또 다시 편

향과 왜곡의 중심 기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승호 사장은 경영적 판단과 능력을 평가하지도 않은 채 본인 임명 전에 선임되었던 50명 전후의 임원 거의 전부를 해임함으로써 부당·불법 해임의 장본인이 되고 대량의 법적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MBC가 가진 역량을 무참하게 훼손시켰고 더 이상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줄 잘 서고, 파업 참여 잘해야' 살아남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파업에 가담하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과 지난 몇 개월간 ○○○, ○○○, ○○○, ○○○, ○○○, ○○○ 등 수많은 직원들을 부당 해고하고 무단 징계함으로써 사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남용하였습니다.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과 다른 노조에 가입된 직원에 대한 집중적 탄압과 불이익은 다른 한편으로는 직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민노총 소속 노조의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제천 소방관 왜곡 보도, 전자 담배 관련 보도는 물론이고 세월호 첫 보도 기자나 대통령이 제기했던 헌법 개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터뷰어 대상을 조작하는 보도를 낸 것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자를 경징계에 그침으로써 앞서 언급되었던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중징계와는 전혀 다른 명백한 이중적 태도를 노골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도에도 없고 노사 합의도 없는 국장 임명 동의안을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그것도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노련 MBC본부가 감행해 온 것은 명백한 인사권 침해임에도 이 인사권 침해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다섯째, 국민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갖던 공영방송 MBC를 정권의 방송, 특정 정치 세력과 민노총의 방송으로 전락시켜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김미화 앵커' 사건으로 상징화되었듯,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MBC는 개회식부터 시청률 3.2%로, SBS 6.4%, KBS 9.3%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참담한 시작을 한 후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의 경쟁력을 보여 결국 전체 5.3% 시청률로 MBC가 올림픽 중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최하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시청률 TOP 20 위에 든 중계는 단 하나도 없었던 유례 없는 참사는 물론, 남북 단일팀 여자 하키를 제외하면 종목별 시청률에서도 1위를 한 종목이 없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012년 6개월의 파업이 계속되던 런던 올림픽에서도 3위, 그 이후 소치 올림픽, 리우 올림픽 모두 2위를 했었다는 것과 비교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광고 수주에서도 불과 103억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중계에서도 아까 보고 나왔듯이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승호 사장은 공영방송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고, 공영방송사 MBC에 부여된 목표인 시장 트렌드를 선도할 콘텐츠 제작과 혁신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시청자와 소통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철저하게 민노총 노조원 등과 소통하며 현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정당한 역할을 포기해 왔습니다. 특히 전사적 역량을 모으기보다는 노조 위원장 및 노조 간부 출신과 본인이 몸담았던 <PD수첩>과 관련된 '시사PD'들을 내세워 MBC를 운영함으로써 MBC가 가진 역량을 훼손시켰고, 더 이상 국민이 기대하는 공영방송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7개월 가까운 파행적 경영의 결과 MBC를 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의 본산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문화방송이 아닌 사회적 편파의 장본인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최승호 사장은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임 김장겸 사장도 정권 교체 이후 9개월만에 전격 해임된 바 있습니다. 전임 김장겸 사장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MBC를 바닥도 없이 추락시

켜 왔고, 각각의 구체적 경영 행위의 결과에 의거할 때 더 이상 문화방송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1,000억원대를 훨씬 상회하는 적자가 불가피한 현 상황이 보여주는 것처럼 MBC 역사에 없는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실히 일하는 임직원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속해야 할 MBC라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관리감독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최승호 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구현은 조기에 사장 해임이라는 단호한 결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임 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에 따라 해임 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제10기 방송문화진흥회 임기가 종료 시점에 와 있고, 현재 방문진이 해임을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는 8월 새롭게 구성될 차기 제11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신임 사장을 새롭게 선출, 또 시작하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인 국민 방송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도록 해야 할 책임을 깊이 느끼기에 최승호 사장에 대한 해임 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해임 결의안이 이미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해 주십사 부탁을 하려다가,

○ **권혁철 이사**

- 조금 요약했습니다.

○ **의장**

-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그대로 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른 이사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동 이사**

- 저는 이 판단을 과연 현재의 최승호 사장을 그대로 유임 지속시키는 것이 한국 사회나 MBC나 혹은 MBC 직원들에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찾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사회나 MBC 직원들에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겸 사장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개인을 7~8개월 만에 중도에 하차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것을 감내하거나 또 이것이 6개월 혹은 1년을 지속시킬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후폭풍 혹은 그 피해가 너무 막중합니다. 본사 경영의 성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지방사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이고, 광고 수주의 추세도 마찬가지이고, 시청률의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경과 및 동정 보고에도 나왔듯이 4.8%입니다. 4.8%를 가만히 보면 tvN이나 JTBC, MBN과 큰 차이가 없고, 나머지 지상파 3사들과는 커다란 완벽하게 차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의 파업이나 2017년의 6개월에 가까운 파업 때도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에게 억울하고 또 가혹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 혹은 MBC가 당면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방문진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맞고, 또 그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조기에 제11기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왜 이 판단을 하느냐 하면 최승호 사장이 2018년 기본운영계획을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에 경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4월 초에 경영 현안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시 요청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진단하고 판단하고 가는 방향과 나타나는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이고 거꾸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에 대한 비상 진단과 새로운 방향을 도출하라는 요청에 따라 제시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중순, 5월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화가 가동되고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는 내실을 갖추기 위해 준비 기간을 갖춘 후 3월부터는 정상 가동한다고 중간 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펼쳐진 4월, 5월 드라마는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정반대로 57년 역사에 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문진의 MBC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방문진의 책임이고 또 공영방송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경쟁력 회복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이인철 이사**

- 앞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김광동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 김장겸 사장도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에 물러난 상황이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MBC 자체에는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계시고, 아까도 잠깐 보고 시간에 비상 경영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온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해임 안건에 나와 있던 요지들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경영 실패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꼭 노조를 지목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해집단의 가치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데, 회사가 미래를 향해 나가지 않고 과거의 문제에만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까 균형이나 다양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종의 공영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공영방송이 특정한 이해관계나 가치에 의해 사유화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만을 보면서 현재 당장 현안에 있는 경영 위기 타개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지속될 경우에 있어서 조직이 와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속 나왔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계속 같이 나가야 될 존재인데, 이것이 이런 사유로 인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역량을 상실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10기 이사회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이 안건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장 선임에는 처음에 반대해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사장 선임되고 나서 사장 보고도 들은 상황에서 적자 경영 보도, 아까 지적했다시피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그 이후에 보고를 듣고 또 이사회를 통해 지켜 본 상황으로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10기 이사회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MBC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다는 생각에서 해임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이런 조치에 대해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장**

- 지금까지 세 분 이사들이 최승호 사장 해임 안에 연명해서 같은 입장을 취하신 이사님들입니다. 제가 다른 이사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중간에 진행 발언을 한 말씀 드리면, 아시다시피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이사회 날이고, 해임 안의 경우에는 당사자 소명도 들어봐야 하고 또 이사회 차원에서 해임안 내용에 대한 우리 감사 검토 의견을 다 해야 할 일이지만, 다소 사회 보는 입장에서는 느닷 없이 해임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도저히 그것을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사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 **김경환 이사**

- 해임 안을 세 분의 이사님께서 제출하셨는데,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소명이나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해임 안에 대해 투표를 하는 것조차 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임 안을 제출하셨지만 이것 자체는 저번에 '각하'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 다른 이사님!

○ **이완기 이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이 형식적 절차에 따라 상정됐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해임 안에 대한 발제도 했고 그것을 각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해임 안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임 결의안을 권혁철 이사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시청률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조 방송을 한다, 노조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 민노총과 결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의제 설정이 잘못 됐다, 편향되어 있다, 또 연봉제를 실시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활기찬 조직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고를 남발했다, 뉴스가 편향됐다 주로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전제로 이야기한 '다매체·다채널이라는 변화된 방송 환경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또 반복된 파업에 따른 피해를 조기 수습해서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공정하고 균형된 보도·시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런 문화방송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청률과 관련해서 보면 잣대가 잘못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보면 6.7% 핵심시간대 시청률과 평균 시청률과 비교했는데 이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시려면 6개월의 평균 시청률이 아니라 6개월 동안 핵심시간대 시청률이 얼마였느냐, 이것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통계….

○ **김광동 이사**

- 이것 핵심시간대입니다.

○ **이완기 이사**

- 이것이 핵심시간대입니까?

○ **김광동 이사**
- 예, 핵심시간대입니다. 오늘 동정 보고에도 다 핵심시간대입니다. 4.8%….

○ **이완기 이사**
- 여기 밑에는 '평균 시청률'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그것이 '핵심시간대 평균 시청률'입니다.

○ **이완기 이사**
-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저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핵심시간대입니다.

○ **이완기 이사**
- 다만, 변호 차원이 아니라 시청률이 최승호 사장이 선임되고 나서 극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무한도전>이라는 아주 선도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후 선도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승호 사장이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PD가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까지 고려해서 결국은 그만 두게 했는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계속 MBC가 <무한도전> 1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끌려 다녀서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시청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경영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유가 시청률이 계속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최승호 사장을 해임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달리 합니다. 과거에 저희가 안광한 사장 해임 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9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안광한 사장의 해임 안을 냈을 때는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노사관계가 갈등과 마찰로 연속되고 있었고, 파업 직전까지 갔었지요. 그리고 2016년 초부터 시작한 핵심 경영 관련자들의 비위, 또 회사의 불법 경영, 부당노동행위, 불법 해고, 불법 징계,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그것은 법적으로도 이미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회사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2016년 연말에 가서는 뉴스 시청률이 평균 2%까지 떨어진 상황까지 갔었지요.

○ **김광동 이사**

- 평균이 아니고 한 번이지요.

○ **이완기 이사**

- 예, 한 번. 그리고 3%로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물론 그것은 파업의 원인도 있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MBC 매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신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뉴스 시청률이 지금 현재 잘 오르지 않고 있는 부분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이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뉴스 시청률이라는 것이 또는 다른 시청률도 마찬가지이고 또 전반적인 회사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최승호 사장 때 와서 경영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적으로 최승호 사장의 책임으로 미루기에는 그 이전에 해 왔던 MBC의 문제점들이 너무 심각한 것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청률이라는 것은 시청자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MBC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끊임 없는 노력을 통해 시청자들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서 시청률을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프로그램이, 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도 갑자기 취재 제작 능력이 수년 동안에 걸쳐서 손 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취재 능력이 신장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형식적 절차를 거쳐 안건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논의사항이 되고 충분히 이사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6개월 정도 되는 사장의 경영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불신임을 하고 해임을 하는 그런 절차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순 이사**

- 저는 대체적으로 이완기 이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모르셔서 지금 이런 해임 안을 내신 것일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반박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할지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겸 사장이 7~8개월 만에 해임됐으니까 우리도 7~8개월 만에 한번 내보겠다, 임기 끝나 가는데 한번 이것 가지고 세게 그동안 억울했던 것, 분통 터졌던 것 뭔가 화풀이 하겠다, 종합 정리 판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식으로 문건을 만드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2017년도 핵심시간대 시청률에 비해 지금 시청률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고 심지어 더 떨어지기도 하고 TOP 20 중에 뭐가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자 편성 720억원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적자 편성을 해서라도 당분간은 인력에 대한 투자와 프로그램 기획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다 들으셨고 거기에 대해 이사회 일원으로 승인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불과 한 7개월 지나서 왜 성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물론 그런 식의 지속적인 비판이나 견제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사실 자체가 정확하게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보고받은 것처럼 2049 시청률 TOP 20 중에서 8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4개 전·후냐, 오늘 나온 것이 6개입니다. 지난주에도 TOP 20 숫자로는 2등을 차지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

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시청률이 빨리 회복세를 보이거나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방문진 이사회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시청률 급반등에 중점을 두고 그것에 노심초사해서 원래 정했던 방송의 정도나 공영방송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이전에 몇 번 부주의한 실수들이 제기가 됐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하라고 경고해야 할 일이지, '시청률이 왜 아직까지 이 정도냐?' 그동안 쌓여온 것이 있으니까 오늘 경영평가 보고서에도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로 인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 뉴스 신뢰도를 본다면 2016년 하반기에 이것이 7월 3일자 미디어오늘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2016년 하반기에 4.8%였던 것이 올해 들어서 7.8% 거쳐 8.8%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이 시청률의 상승으로 동시에 바로 직결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공신력 회복을 통해 시청률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종일관 해임 결의안에서는 '최승호 사장이 본인을 사장으로 만들어준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본부노조의 대변자 역할을 했다', '언론노조 사람들과 결탁해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승호 사장 선임할 때 여기 방문진 이사회에 다른 분들이 계셨습니까? 같은 분들 아닙니까? 이번에 방문진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종 후보 3인에 대해 MBC 노조든 언론노조든 어떤 식으로 hoohaw를 선언하거나 어떤 색깔을 보였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최승호 사장이 사장이 된 것은 언론노조에서 만들어 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장에 대한 공개적인 질의 과정이나 투명한 시청자 의견을 받는 과정, 여기에 참여한 시청자,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편향된 진보적 시각에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노조 파업에 가담했다거나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동안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조직 문화를 유린한 이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편향된 진보적 시각이지요? 그것은 회사 운영 차원에서 내버려 두어야 정상입니까? 균형 잡힌 뉴스를 만들던 약 90명에 달하는 훌륭한 역량과 균형성을 갖춘 보도국 기자들 제발 명단 좀 주십시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도대체 어떤 뉴스를 만들어서 균형성과 훌륭한 역량을 갖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세월호 오보 내고 제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이것이 무슨 훌륭한 역량과 균형성입니까?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직원들 간에 정당한 인사상 의견 교환 행위에 그쳤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부당합니까? 민노총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몇 개월간 ○○○, ○○○ 등등 ○○○, ○○○, ○○○ 등을 부당 징계하고 해고했다? 이 분들의 징계 사유가 민노총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것입니까? 징계 사유를 보십시오.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편파 보도에 앞장서고, 동료 직원들 잘라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 파업에 가담하지 않아서 징계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관계 자체를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 아시면서, 이렇게 왜곡하고 비틀어서 최승호 사장 해임 결의안이라고 내신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정파적인 수준의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상관 없으니 마지막 이사회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의견을 내겠다,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면 그냥 '정치적인 프로파간다(propaganda)를 하고 싶은가 보다' 차기 이사 선임을 앞두고 그런 식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일이 논의

할 대상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 말씀하지 않으신 이사님들!

○ **유기철 이사**

- 저는 이진순 이사님과 비슷한데, 세 분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황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판단에도 편향된 시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민위원회가 북한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철 지난 색깔 논쟁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지난 6월에 폭망한 사람들 못 보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주의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좋은 주의주장을 하시려면 3년 전에 임기 초에 하시지, 다 끝난 날 와서 이제 와서 제 정신을 차리는지 제가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방문진 이사이기 때문에 이런 안건을 충분히 낼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준비해 오신 것을 제가 궁둥이가 조금 가벼워서 그런지 굉장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의도하는 그런 의지는 다 반영된 것 같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특히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느꼈던 것은 김광동 이사님께서는 바로 뒤에 안건이 나옵니다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데 주관적인 표현이겠지만 제 느낌에는 조금 뜨악합니다. 그리고 이진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일일이 반박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지만 논지 자체가 보면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가 되어서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하니, 투표니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에서 그만 논의하고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김광동 이사님 조치에 관한 논의 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 최 이사님!

○ **최강욱 이사**

- 제가 방문진 이사회에서 받은 어떤 문건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메이저 방송사로서의 MBC 경쟁력과 존재감 그리고 국민 신뢰 등 모든 영역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상황을 초래시켰다. 오랜 기간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행되어 온 공영방송 위상과 정체성 정립 과정 및 노력을 일거에 허물어뜨렸다. 더 이상 문화방송의 경쟁력 유지와 정상적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보편적 가치와 불편부당성을 추구함에 따라 국민 모두로부터 사랑 받아야 할 문화방송을 다양성과 균형성이 상실된 극단적 정치 편향 방송으로 만들었다. 사회적 의제 설정이나 국민에 대한 보도 서비스 기능을 근본적으로 상실시켰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 비판한다는 방송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 홍보 매체를 자임하며,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구성원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뉴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MBC 뉴스를 사회적 가치 주도는 커녕 편향되고 볼 가치가 없는 뉴스로 전락시켰다. 훌륭한 역량과 균형성을 갖춘 보도국 기자들에게 뉴스 제작을 못 하도록 업무를 박탈

한 유례없는 조치를 했다. 취임 이후 전사적 역량을 모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포기하고 철저히 이중 잣대를 갖고 부당한 인사 조치와 통신비밀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해 가며 부당한 해고 및 부당 징계를 남용하였다. 그 결과 MBC가 가진 역량과 조직을 철저하게 형해화 시켰으며,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당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다. 수많은 직원들을 무단 징계하거나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시청자가 사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경영 조치를 계속하였다. 이중적 대응과 인사 조치 방식으로 특정 노조를 지원, 육성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확대시켜 왔다. MBC가 가진 역량을 훼손시켜, 창의적 콘텐츠를 주도하기는 커녕 더 이상 국민이 기대하는 바의 공영방송 위상에 걸맞은 공적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수준을 만들었다. 그 결과 공영방송 MBC는 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의 본산으로 추락하였고, 공정성과 균형성으로 국가 사회적 추의 역할로 기여해야 할 문화방송이 오히려 사회적 편파와 왜곡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었다’ 2018년 7월 4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권혁철, 김광동, 이인철 세 분이 쓰신 글입니다. 어떤 사람의 해임 사유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명하고 선출했던 사장, 지명은 아니지요. 지시를 받아서 대리 선출했던 사장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한 역사적 자료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떠나시는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장 해임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걸쳐 진행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수준의 문구를 가지고 누워서 침 뱉기를 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본인들이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사장도 선출해 봤고, 그런 사장을 두둔도 해 봤고, 그런 사장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용서해 주었고, 심지어는 옹호했고,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함께 다니면서 좋은 음식과 맛있는 술을 마셨고, 의전을 강조하시는 분들답게 외국에서 충실한 접대를 받으셨고, 그런 데서 온 안타까움이 이런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뿌렸던 씨앗, 그 씨앗이 낳았던 참혹한 열매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이 없이 마지막까지 이런 자료를 남기고 떠나시는 점에 대해,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기게 해 준 점에 대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사로서 재임하면서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결국 제 우물에 챔 뱉기를 하는 결과를 낳았고, 임기 막판까지 벌어진 추문으로 인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위상을 끝없이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하고서도 단 한 번의 깊은 성찰이나 고민이 없었다. 제가 방금 발췌해서 읽은 문구는 그 문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그대로 되돌려 드리고 싶고, 저는 이 논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도 없고 진행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폐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지금 현재 해임 안을 제안하신 세 분께 다른 이사님들 반대 의견을 대표로 한 분만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한 분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이인철 이사**

-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앞에 이완기 이사님이나 이진순 이사님 같은 경우 경영 실패 관련한 부분에서 시청률이 오랜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왔던 부분이 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 요약하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경영 실패지만 더 큰 배경이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 서로 간 의견이 상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방송을 끌어나가는 경영자의 인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해임 사유로 나와 있던 그런 식으로 치우쳐 있고, 공정성이나 그런 가치에 충실하지 않고 한쪽으로 매몰된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방송의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에 의해 사유화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런 문제로 인해 최종적인 결과는 MBC 자체의 역량이 소실되고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심각성을 봐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로 결론을 내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지금 해임 안 내신 세 분 중에 대표로 한 분 이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지금 논의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임 안을 내신 세 분 이사님 빼고는 이 해임 안에 찬성을 표시하신 이사님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절차상 관례나 과정을 밟으면 여러분들 해임 안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다시 반대하신 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는 이유는, 조금 전에 최강욱 이사 말씀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씀하셨고 김경환 이사도 각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완기 이사께서는 안건이 접수했으니까 표결하는 것이 옳다, 약간의 의견 차이들이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제 말씀의 취지는, 관련 절차는 일단 사유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 해당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그 결과를 놓고 이사회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표결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가 초입에 머물러 있는데 저는 이 논의에 참가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더 이상의 논의 없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 **김광동 이사**

- 이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해임 안으로 지적된 사유에 대해 적절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추가 토론을 해 주시고, 그 토론과 관련해서 도저히 이것이 더 이상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면 저는 표결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래도 지적된 사안에 대해 그 사유가 맞느냐 틀리느냐, 혹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회의 진행상으로도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 **의장**

- 저는 진행하는 입장에서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의가 되려면 의견이 서로 엇갈린

이사님들 논의 수준이나 전제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해임 안을 제출하신 분 빼고는 '어이가 없다든지', 논의 자체에 대해 이를테면 발언하지 않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고, 토론하자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 이사가 이야기하는 식의 논의 말고, 객관적으로 여기 나와 계신 다섯 분들은 우리 이사회 정족수에 다 해당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 의사를 다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여러분들의 해임 안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에 대표로 한 분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동 이사**

- 지금 과반수 이상이 토론을 거부합니까?

○ **의장**

-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 **이진순 이사**

- 원래 절차대로 한다면 최승호 사장을 불러서 출석시켜서 소명할 기회를 잡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임시이사회를 또 잡아야 하고 그 이후에 토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지금 다수 이사들의 생각은 최승호 사장을 이러한 일로 불러서 소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말자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더 이상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해서 표결이 필요하다면 거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완기 이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형식적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논의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기철 이사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도 최강욱 이사님 생각과 거의 유사합니다. 2016년 9월에 안광한 사장 해임 건의를 했을 때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었지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제대로 토론도 못 하고 각하가 됐습니다. 논의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것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인데 기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각하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표결에 의해 각하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식 안건으로 올라와서 상정된 안건이면 적절한 논의를 거쳐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데, 여기 잘 아시는 세 분 이사님들 다 계시지만 그때 각하했었지요. 안건 자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이인철 이사**

- 그때 일사부재의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냈다가 다시 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이완기 이사**

- 다시 낸 것이 아니지요. 처음 낸 것입니다. 여기 이인철 이사 앞에 계시지만, 그 이전에 안광한

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그 지적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해임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인철 이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이전에 논의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여기에 종합해 놓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안건 자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런 이유로 다수에 의해 각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아까 최강욱 이사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었고, 이진순 이사님도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고, 또 유기철 이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했으면 제 판단으로는 더 이상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 그래서 그 과정상의 절차 문제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진순 이사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이진순 이사**

-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 **의장**

- 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 **이진순 이사**

- 예.

○ **김광동 이사**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기각이 되든 혹은 찬반에 의해 유임이 되든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거론하면서 문제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각됐다, 혹은 사장이 유임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남은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들에 대해 상호 공유되고 나서 그런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결론이 어떻게 되든 유의미한 것인데, 여기에서 지적된 모든 내용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기각하고 가자는 것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인식에 대한 공유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공유라는 과정 자체도 저는 포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 **의장**

-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면 다 일일이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10기 이사회가 오늘이 마지막 이사회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사회에 이 안건을 제출하셨고, 원론대로 하면 당사자인 최승호 사장을 불러서 소명도 듣고 절차를 밟아서 안건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차나 과정상의 이야기를 다시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현재 이 해임 안에 뚜렷이 반대 의사를 밝히신 분

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절차를 제대로 밟자고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시간도 없습니다. 아까 이완기 이사님 말씀처럼 원론대로 하면 각하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의 관례를 봤더니 그것도 수없이 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것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표결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족수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 처리를 이사회 마지막 날 안건에 넣어서 아까 이진순 이사가 정확히 표현했지만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알만한 분들이 했으니까 우리 의견을 다 듣고 지금 반대 의견도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 다시 아까 김 이사 말처럼 토론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얻는 것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과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은 제가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사장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인식과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한 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김광동 이사가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식과 가치를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기에 있는 회의체든 그 임기를 종료하면서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그대로 폐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하나 기각을 논의할 가치도 없이 이것은 논의를 여기에서 중단하고 폐기시키는 것으로 종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철 이사**

-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을 7월 4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안건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소환까지 포함해서 절차가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다른 안건이 많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시간이 뒤로 밀려서 결국 마지막 날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사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안건으로 제출된 상황에 있어서는 일단 안건으로 올라온 이상 논의가 있어야지요. 논의가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 아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묻어둔다는 것은 회의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 지금 논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 **이인철 이사**

- 제 말은 지금 의견을 주신 분들이 결국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봐서, 그리고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자면 결의로 해서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각하냐 기각이냐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는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봐야겠지만 그때는 아마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다 떠나서 이것이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해서 이것은 아예 안건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각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건으로 일단 올라와서 다루어졌

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반대 의사를 이미 다 표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 논의가 다 된 것으로 본다면 결의로 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완기 이사**

- 이인철 이사님, 그것 기억나시지요? 임기 3년 내내 일사부재의 가지고서 어떤 의제를 올려도 이것은 전에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여러 차례 여러 의제들이 각하가 됐었지요?

○ **이인철 이사**

- 그런데….

○ **유기철 이사**

- 이사장님, 그만 하시지요. 이 분들 목적이 달성된 것 같은데….

○ **최강욱 이사**

- 다른 사람 다 이야기해도 그 논의를 제안하고 주도한 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 **이완기 이사**

- 회기가 임기라고 이야기하셨고, 오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각하는 불가능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이사장님께서 여쭤 보시고 대충 어떤 의견들이 집약이 됐으면 이사장님께서 판단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건 제안하신 분 설명 들었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 하신 이사님들 이야기 듣고, 그 뒤로 한 차례씩 서로 의견을 추가해서 들었습니다. 안건으로 냈으니까 표결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더 이상 토의나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각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회자로서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저도 사회자지만 이사의 1명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여기에서 진행을 보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선 제가 다른 이사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이 해임 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 **김광동 이사**

-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

○ **의장**

- 추가 논의….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 이인철 이사
-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 의장
- 예.

○ 이인철 이사
- 논의는 다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논의를 더 할 수 있다면….

○ 의장
-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정족수도 충분히 충족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안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표결하지 않습니까?

○ 의장
- 표결하지 않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 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기타사항

1) 본회 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논의건

○ **의장**
-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본회 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논의건'입니다. 관례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사께서 괴로우시겠지만 자리를 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철 이사**
- 왜요?

○ **의장**
- 지난번에 논의하던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발언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벌써 이것이 다섯 번째 이사회 논의이고 제가 2시간 이상씩 벌써 두 번에 걸쳐 자리를 비웠습니다.

○ **의장**
- 말씀하십시오.

○ **김광동 이사**
- 무슨 조치를 더 논의한다는 것인지….

○ **의장**
- 본인이 지난 주에 저희들이 논의한 내용을 못 들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 **김광동 이사**
-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 하십시오.

○ **김광동 이사**
- 지난 6월 21일 MBC 감사가 권한도 없고 절차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보고를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 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당시 우리가 PPT를 띄워 놓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 동반되어서 여성 도우미의 접대를 받았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1박 2일 골프를 쳤다, 테헤란로 강남 접대부가 나오는 곳에 간 의혹이 있다, 도저히 필설로 할 수 없는 차원의 공개적 감사 보고를 시작함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벌써 임시이사회 두 번을 포함해서 다섯 번의 이사회를 반복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인격 유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타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짓밟고 상정시켜서 하는 것이 마치 본인들은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것 같습니까? 즐기시는 것입니까? 1~2분 더 하겠습니다. 지난 6일 21일 감사 보고 및 7월 5일의 추가 감사 보고는 몇 개월에 걸친 명백한 표적 감사의 결과입니다. 그 내용도 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 명함까지 나열해 가면서 국회의원과 동반한 여성 도우미 접대다, 사적 방문의 골프 접대다,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업소 출입이다 라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나열했던 감사 보고입니다. 그런 감사 보고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렇게 임시이사회 두 번을 걸쳐 반복하는 것 자체가 방문진의 다수 이사가 소수 이사를 대상으로 펼치는 의도적인 명예 훼손이고 인권에 대한 유린이라고 보입니다. 업무 출장 중 과도한 비용 지출이 있었고 또 보다 엄격했어야 한다는 사실에, 판단에 변함이 없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업무 관련 참관 행사의 일정상에서 이루어졌던 비용입니다. 그러나 논의의 근거가 된 MBC 감사의 보고 내용은 공식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출의 적절성은 단 하나도 따지지 않은 채 본인이 관련된 것과 본인이 관련되지 않은 방문진과 관련된 것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방문진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부적절한 접대라며 저 개인을 지목해서 일방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보고를 기초로 조치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영방송의 감사 조직을 동원해서 허위 조작에 의한 표적 감사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국민 자산인 방문진 이사회가 이런 운영을 통해 소수 이사에 대한 의도적인 인격 모독을 계속하고 반복하는 것은 소수 이사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잘 알다시피 작년 5월에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임기제로 운영된 방문진 3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던, 일부 이사들이 끌어 내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시에 본인에 대한 불법적 교체 시도와 일방적 협박도 수없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결과 결국 권력의 강압과 노조의 폭력 행위로 재구성된 방문진이, 그 방문진의 다수 이사가 본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와 이런 논의의 결과에 대한 그 어떤 결과도 저는 저에 대한 그 결정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 **의장**

- 다 하셨습니까?

○ **이진순 이사**

- 신상 발언 하셨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 **최강욱 이사**

- 끝까지 방문진 전체 이사를 모독하고 본인의 성찰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 9년 임기의 마지막 모습으로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반성하십시오. 어디서 저따위 소리를 하고….

(김광동 이사 퇴장)

○ 의장

- 제가 김 이사가 나가기 전에 이야기해 주려고 했는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대신 다른 이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본사 감사의 표적, 본인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제가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김광동 이사와 같이 일을 해 본 기회가 지난 석 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이사를 공식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가 김 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억하심정이 있을 리도 없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본부 감사의 보고 내용 중 일부를 김광동 이사 본인이 문제를 삼아서 법적 소송을 제기한데다가, 또 여기 계신 이사님들이 그 감사의 보고 내용으로 해임 안을 내면서 시작된 사안입니다. 아까 김 이사 말대로 본인 설명을 여러 번 했는데, 김 이사 본인에 대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 이사들이 명예 훼손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 이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김광동 이사에 대해 해임 운운한 안건을 정식으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본부 감사에 대한 해임 안은 이미 안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불가불 논의를 했지만 김광동 이사에 대해서는 같은 이사회 이사이고, 논의하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김 이사 입장을 고려해서 공식 안건을 채택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병행해서 해 왔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김 이사가 중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논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철 이사

- 이사장님, MBC 감사가 그것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MBC 감사가 부적절한 절차에 따라 그것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그것이 부실·허위 감사라는 것이고 그것이 부당하게 김광동 이사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의 사단은 MBC 감사가 부실·허위 감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김광동 이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 의장

- 그것은 지난번에 본부 감사에 대한 해임 안 제출에 따라 우리 이사회에서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언부언 하지 맙시다.

○ 권혁철 이사

-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 의장

- 그때 여러분들이 의견 제출하고 반대 의견 들어서 표결로 결정 난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본인들끼리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재론해도 늦지 않으니까, 오늘 마지막 날 시간도 없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시지요. 지난번에 의견을 모아 주십사 했는데 거기에 관한 후속 논의를 해 보고 회의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의견들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환 이사**

- 저는 다른 이야기보다 김광동 이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당 측'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이사가 본인을 공격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저 개인적으로 전혀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들이 과연 적절했는지 또 적절하지 않은지 방문진 이사로서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데 있는 것이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했다는 것 자체는 김광동 이사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인철 이사**

-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야 할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1년 동안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무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 **최강욱 이사**

- 1년 동안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 권력의 강압과 노조의 표적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방문진 이사회 다수가 명예 훼손을 하고 본인을 1년 동안 억압했다는 것입니까?

○ **이인철 이사**

-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최강욱 이사**

- 저를 쳐다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까?

○ **이인철 이사**

- 1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이 쭉….

○ **최강욱 이사**

- One year가 아니라 continue를 말하는 것입니까?

○ **이인철 이사**

- 쭉 이어져 온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녹음을 듣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을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없는 일을 가지고 만들어서 명예 훼손하고 압박한 것입니까?

○ **이인철 이사**

- 없는 일을….

○ **유기철 이사**

- 아무리 그렇다고 아까 다수 이사가 소수 이사를 공격한다느니,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영춘 감사의 표적 감사에 공모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묵과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공모했습니까? 우리 공모했습니까? 공모하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실 감사 일부 있었지요. 2%인지 10%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꾸 소설, 왜곡, 표적 하면서 99%의 진실을 타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체 이것은 반성 자체가 없는데, 아까 사석에서 '감사실 직원들이 유 이사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저를 겁박하더라고요.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를 무슨 영광으로 알겠다느니, 오늘 지나면 각자 흩어지니까 뵐 일도 없겠지만 참담하네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조치에 대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순 이사**

- 저는 지난해 11월 2일 회의에 보궐 이사로 처음 참석을 했고, 그때 처음 참석할 때 안건이 고영주 전 이사장 해임 결의안이었습니다.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결의안 논의를 첫 의제로 참석해서 지금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회의에서까지 동료 이사에 대한 징계 여부, 해임 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화가 납니다. 유쾌하냐고 가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유쾌합니까? 불쾌합니다. 말할 수 없이 불쾌합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좀만 잘하시지' 왜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드셨는지 진짜 붙들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이 사안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공공기관의 이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정,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조금 순진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자리에서라도 김광동 이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일부는 일정을 충실히 확인하지 못하고 의혹을 먼저 제기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본인도 사실을 인정하고 방문진 감사에 의해서도 팩트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포괄적으로 유감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 적어도 개인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자진 사임하는 방식으로 입장 표명을 해 준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방문진 이사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진짜 끝까지 추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들은 것처럼 본인은 끝까지 전혀 반성이나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비리를 적발하고 드러낸 주체에 대해 '표적 감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 방문진 이사의 임면권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동료 이사에 대해 이사회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하는 것 이외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과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이사님들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차기 이사에 대한 심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수 의견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김광동 이사에 대해 방통위에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것과 별도로 방문진

이사회 이름으로 이렇게 방문진 이사가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를 받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을 했던 이런 사안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방문진의 윤리 규정, 윤리 지침을 대폭 강화하고 감사의 감사 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별도 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기 이사회 구성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식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어도 그동안 유야무야 서로 묵인되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짬짜미로 넘어갔던 것이 방문진의 법조문에도 없는 소위 정당 추천의 관행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작은 규모의 정파적 협상의 장 이런 식으로 비춰지면서 문제가 있어도 그냥 감싸고 넘어가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사회가 적어도 '여권 추천' 이사, '야권 추천' 이사로 불리는 마지막 이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기에 구성되는 이사회는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수준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충분히 인사 검증이 된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관으로의 위상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 **이완기 이사**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순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광동 이사께서 이번에 감사 보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드러났지만 저는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벌였던 MBC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그 때마다 김광동 이사의 태도나 또는 생각이 사실상 오늘날 MBC의 추락한 모습을 만들어 내는 데 크게 영향을 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6월 21일 감사 보고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물론 억울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 쪽에서 인정했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김광동 이사께서 조금 태도를 달리 하고 자신의 지난날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문화진흥회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료 이사로서 방문진 이사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이사님들마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공영방송인 MBC의 관리감독, 또 MBC의 공적 책임 부분들을 실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방문진 이사들의 처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광동 이사는 방문진 이사를 3년씩 세 번 9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9년 동안에 걸쳐 그야말로 MBC가 참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의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문화진흥회의 그동안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의 문제도 있고, 또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을 놓고 과연 그렇게 해야 할 것이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방문진에서는 방문진 나름대로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야 할 건의가 있으면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순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김광동 이사의 해임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내서 임면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임무가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다른 이사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인철 이사**

- 저는 감사 해임 건의안을 제안함으로써 전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방문진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용은 이미 지난번에 밝힌 바와 같습니다.

○ **의장**

- 의견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 **권혁철 이사**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이렇게 했고 시작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감사가 추가적으로 2차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 1차는 명백한 허위 감사였고, 2차 보고에서 나온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도하고 부적절할 수도 있는 접대였다고 본인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본인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안은 당시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행사 또는 그런 일정에 본인이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본인 개인에 대한 접대인 양 오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김광동 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건의한다면 지난번 회의에서 잠깐 나왔었지만, 명백하게 허위 그리고 부실 감사를 한 감사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조치는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만약에 그것이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방문진 행사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되고 현재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처신이 요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윤리 강령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논의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광동 이사 개인에 대한 해임을 논할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가 방문진 이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의장**

- 지금 권 이사도 해임 안을 내신 분 중 한 분이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지만, 내는 입장과 받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광동 이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임과 관련된 안건이 없습니다. 박영춘 감사나 최승호 사장은 해임 안이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해야 할 대목을 그렇게 쉽게 해임 안을 내놓고, 다른 사안에 대해

서는 우리가 신중해야 하고 관행을 참고하자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현재 해임 건의가 괜찮다는 의견이 두 분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족수가 되어야 안건이 되니까 다른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유기철 이사**

- 지금 권혁철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김광동 이사 신상 발언 하실 때 복잡하게 이야기하시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같이 가서 먹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대충 보면 그런 톤입니다. 개인 접대가 아닌데 내가 다 쓴 것처럼 뒤집어 썼다는 취지지요. 둘이 갔을 때는 3,500, 여럿이 갔을 때 훨씬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부 공적으로 사용되고 N분의 1로 해석하는 것이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는 것인데, 그것은 공영방송의 이사까지 했다는 분이 그런 메커니즘을 모르십니까? 기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비치는 것입니다. 라디오 기사가 됐든 TV 기사가 됐든 신문 기사가 됐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충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사과하고 가시는 것이 낫다, 왜냐 하면 자꾸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다 쓴 것처럼 비치는 것 자체를 다른 이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 자리에서 끌탕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즉에 그런 소문이 있었으면 출장 횟수를 줄이고 자제했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 않았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자기가 한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세상 탓을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이완기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것, 김광동 이사님 같은 경우 특별하게 완곡하게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추해 보면 '왜 이분에게만 이렇게 생각할까?' 하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런 것들이 확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문제가 향응 일부 나왔지요. 극히 일부분 부실 감사로 드러났고, 상당 부분 울산MBC 포함해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대가성 이런 것들은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상 보면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골프 쳤다고 해임? 이것은 일반 노동자로 따지면 해고인데, 그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정서법으로 따지면 또 지금 하신 태도로 보면 당연히 해임 건의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흥분하신다고, 또 재단을 해야 하는 저희의 판단도 업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일부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퇴권고 정도면 어떤가? 일부에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실효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그 2가지 측면이 있는 것은 해임 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도 없다면 이 정도로 해서 정리하고, 아까 이진순 이사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입장문 같은 것이 일부 있으면 각 이사들이 사무처에 제출해서, 이것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3년을 마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서 정리해서 8월 초라도 발표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것은 따로 임시이사회를 열지 않아도 서면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최 이사와 김경환 이사의 마지막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김경환 이사**

-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임 안을 내든 사퇴 권고를 요청하든 결국 넓은 면에서 봤을 때 김광동 이사는 현직에 계셔서 더 주목받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사퇴한 방문진 이사들도 이름이 많이 관여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딱 1명의 문제이냐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문제이고 나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될 수 있어서 저는 부적절한 MBC와의 접대나 향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문진의 입장 표명, 또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정리해서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린 사람은 문제가 되고 안 걸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방문진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여러 명이 가서 공개된 데에서 MBC에게 얻어먹은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접대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것 자체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문진 이사와 MBC의 부적절한 접대, 향응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방문진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의장**

- 최강욱 이사!

○ **최강욱 이사**

- 방문진의 입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참혹한 사태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저렇게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이런 상황에서 자꾸 상상력의 한계를 느끼는 지점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치를 그냥 던져 놓고 알아서 하라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떻든 간에 이사가 동료 이사에 대해 표결을 통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도 향후에 나쁜 전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6년 동안에 하도 어이없는 꼴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무슨 일이 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뭔가의 근거와 결의는 남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유기철 이사님께서 적절하게 표현하신 것처럼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었던 해임 요구나 사퇴 권고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지나가다가 걸린 사람 하나는 절차를 밟아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쳤으니까 끝나는 이런 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결의 내용의 완결성이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하는 소행으로 봐서야 해임 안이나 더 심한 것이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결론이 모아질 수 있다면 전원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저희가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그대로 담겨서 전달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10기 방문진에서 벌어진 이런 일련

의 행태에 대해 관련 기관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감사나 조사 혹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서 처벌할 부분은 처벌하고 회수할 자금이 있으면 회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먹고 튀면 그만이고, 나중에 다른 데 감사 하다가 우연히 적발되고 나면 나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저희가 얼마나 지금 참담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내용에 담고, 그 조치와 관련해서 결론을 한쪽으로 맺어서 어느 일방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토의를 거듭하기보다는 결론을 열어서 이러이러한 논의가 제기됐고 이런 결론이 제시된 만큼 향후에 저희 임기 마친 후가 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제가 말씀드린 감사, 조사, 수사든 모든 것을 통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책임 추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고, 또 다른 기관의 시안이나 결론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그나마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서 감히 수정 제안 드리겠습니다.

○ **이완기 이사**

- 저도 딜레마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최강욱 이사님 말씀하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곤경스러운 부분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쁜 전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동료 이사들 원수 갚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방문진은 좀 더 국민 수준에 맞게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치를 계기로 해서 그것이 더 도덕성이 높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것을 한 달 가까이 논의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하든 하지 않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자진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광동 이사의 소명도 들어봤지만 자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전혀 반성할 기색이 없는 분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해임 건의를 결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이사가 말씀하셨듯이 논의가 모아지지 않은 부분은 하나의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나왔던 것이 방송문화진흥회가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사실상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거기에 구속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 방문진 이사로 남아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시켰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뭐라고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까? 한 가지 좁혀진 부분이 있다면 아까 이진순 이사가 말씀하셨듯이 일단 방문진 전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 성찰하고 그런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김광동 이사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 제가 사회 보는 입장에서 대부분 이사님들 의견 다 듣고 진행 발언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김광동 이사와 관련 논의에서 현재 두 분 이사들은 초지일관 어떠한 조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셨고, 다른 다섯 분 이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사회인데, 제가 봐도 오늘도 해임 건의 두 분, 사퇴 권고 한 분으로 의견이 안건 올릴 만큼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이진순 이사가 병행해서 문제 제기했던 소위 입장 표명 문제의 경우에는 유기철 이사나 김경환 이사나 최강욱 이사 네 분 정도가 비슷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안건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결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사회 보는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입장문 채택이 그 안의 내용은 우리가 서면을 통해 답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표명을 하자는 쪽에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입장문 표명으로….

(거수 표결)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광동 이사 건과 관련해서 이전에 우리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아까 최 이사 말씀처럼 한 개인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있었고, 또 본인은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 한마디 언급 없이 자리를 뜬 데 대해 정말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이사회를 구성했던 일원으로서 동료 이사를 소위 징벌하는 표결을 한다는 점에 대해 그나마 최 이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좋은 인도적인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아까 이진순 이사가 말씀하셨듯이 제10기 방문진 이사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참담하게 겪었던 내용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 그 다음에 제11기 이사회에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MBC에 우리가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다짐, 국민들에 대한 사과 이런 여러 가지를 담으면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 이상으로 그나마 제10기 이사회를 마치면서 하나의 결실이라고 할까, 최소한의 예의라고 할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관해 물론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입장문 채택에 정족수가 동의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사무처를 비롯해서 입장문 표명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능하면 많은 이사들이 동의하고, 물론 최악의 경우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까지 강요하지 않겠지만 입장을 담아서 공표하도록 하고 오늘 논의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제10기 이사회 중간에 영문도 모르고 들어와서 맡게 되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38년 전 일이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던 이유는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아직도 우리 언론이나 방송 환경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방문진 이사회에서 제한된 매체이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에게 후보를 공개 중계 방송을 통해서 소견 발표를 거치고 이사들이 자기 토론을 거쳐 사장을 뽑은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방송에 종사한 사람으로서는 방송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격찬했습니다. 또 상대 사도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사장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안 되어서 갑자기 해임 안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제가 진행해야 한다니까 개인

적으로 엄청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날짜까지 우연히 겹쳐서 그러는데, 하여튼 미우나 고우나 3년 동안 같이 계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부는 남고 또 일부는 나가시겠지만 일단 방문진 이사회 일원으로 계셨던 만큼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할 MBC, 좀 더 크게는 방송문화에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했던 입장문 발표는 빠른 시간 안에 사무처에서 초안을 준비해서 이사님들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7. 폐회 선언

○ **의장**

- 이상으로 2018년 제14차 정기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폐회】